

##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 2005년, 작심삼일이라도 시작해라!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사  
(ajukbo@hanmail.net)

이번 달에는 2005년의 첫 달이니 만큼 지난해 연초에 세웠던 한 해 목표들을 최종 점검해 보고 이번 해에 실천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MSN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지난해 12월 신년 계획 성취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넘는 사람들이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네티즌 10명 중 6명은 작심삼일형 인간으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패를 속단하고 지레 체념하기보다는 새로운 해에 도달하지 못한 목표를 위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발명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올해엔 기필코 금연이다!' 혹은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라는 계획들보다는 '올해는 그 동안 가지고 다녔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야지! 이제는 발명을 해야지' 등의 계획을 세운다면 더 멋진 2005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1%에서 시작되고, 그 1%는 작심삼일에서도 얻을 수 있다. 우선 그 1%를 얻기 위해 발명에 도전하는 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첫 계단을 오르는 일이다.

##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즉 천재가 아니라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를 3개월 만에 쫓겨난 에디슨이나, 인천 옥련초등학교에 다니는 정수환(5년, 12), 수민(3년, 10) 형제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한 '제2회 발명콘텐츠 공모전'에서 '황우석 교수와 같은 최고의 생물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발명가의 꿈을 의미있게 잘 표현하여 어른들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한 것, 그리고 전 아이디어뱅크(IBG) 개발실장 박병기 씨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뱅크 박 실장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다. 그 후 목욕탕 때밀이에서부터 공사장의 막노동꾼, 과일행상, 구두닦이, 야채 행상 등 이른바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다. 그런 그가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회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에서 금상과 동상, 거기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까지 수상하자, 전 세계가 그의 발명품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명품은 과일행상을 하던 시절, 사과를 팔고 나면 빈 나무 상자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발명한 '접는 상자', 그리고 그에게 발

명가로서 인정을 받게 한 '냉장고 좌우 문열림 장치'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쉽게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좌우 어느 쪽에서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삼성 전자에게 특허권을 넘기고 로열티를 받게 되었다.

또 농민발명가 원종실씨(64, 강원 원주시 소초면)도 지금까지 14가지를 발명해냈다. 원씨의 최고 발명품은 간단한 '고추 포기 지주대'로 이 지주대 덕분에 수확량이 최소 25%에서 3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원 씨가 발명에 매료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이며, 제트기 원리에 착안해 농약분무기를 개선하거나, 농약병 뚜껑을 따기 쉽게 만든 '농약병 따개', 녹색 고춧가루 등을 개발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 지난 후에는 흐지부지해진다'는 뜻이다. 일본의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저서에서 '사흘마다 작심삼일을 해라'고 했다.

이 말처럼 지난해에 열심히 하려고 한 일이 작심삼일이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은 그랬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법이다. 즉 세상이 내 뜻과 같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작심삼일일지라도 거기서 1%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작심삼일이라도 하는 게 낫다

'작심(作心)'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뜻으로, 왜 그 많은 날들 중에서 하필이면 삼일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작심삼일'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사흘을 두고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비로소 결정을 보았다는 신중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기는 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뜻으로 쓰인다. 즉 앞의 경우는 사흘을 두고 작심했다는 뜻이고 뒤의 경우는 작심한 것이 사흘밖에 못간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든지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런대로 본인 의지로 견딜만 하나 삼일째 되는 날부터는 처음에 먹었던 마음가짐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삼일'만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심삼일인 것이다.

이렇게 사흘밖에 가지 못하는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새해 계획으로 한번이라도 '올해는 꼭 발명을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는가?

에디슨의 명언 중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산물이다'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1%의 영감만 있으면 99%의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1%의 영감을 얻기 위해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만 개가 넘는 기업체 중에서 특허를 한 건이라도 가지고 있는 곳은 5%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그 99%의 노력의 시작이라는 것이

## 책 속의 이야기

영동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 실패가 안겨 준 행운 '스트라우스의 청바지'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널리 입을 블루진은 원래 푸른 천막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 어떻게 천막천으로 옷을 만들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아닌 천막상인 스트라우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쾌거였다.

1930년 무렵 미국의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엄청난 양의 금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 이 도시로 모여들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인구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턱없이 지어졌으나 늘 부족한 상태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택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미처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판에 천막을 치고 지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교외에 살고 있던 스트라우스는 금을 찾는 데

신 많은 이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던 그에게 집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스트라우스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천막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주민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마침내 스트라우스는 천막 천을 짜기 위해 공장을 세웠다. 그는 곧 기계를 사들이고 직원들을 모집해 여러 가지 천막 천을 생산해 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그는 천막 천의 품질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그래서 그가 만든 천막 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팔려 나갔다.

어느날 한 상인이 스트라우스를 찾아왔다. 상인은 스트라우스에게 군납대에 납품할 천막 천을 주문하였고, 그 주문량은 스트라우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스트라우스는 상인의 제의에 욕심이 생겼다. 성공만 한다면 단번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스트라우스는 계약금을 조금만 받고 상인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다음날부터 스트라우스는 군납용 천막 천만 생각했다. 주문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해내야만 했고, 나중에는 자금이 동이 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양의 천막 천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던 어느날 그 군납업자가 스트라우스의 공장에 찾아왔다. '견본이 조금 필요하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검사가 끝나는 대로 곧 모두 다 가져가겠소.'

군납업자는 쌓여있던 천막 천 중에서 약간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가 돌아간 뒤 스트라우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와서 검

